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유아적 사고

(흑백 논리)

‘All or Nothing’, 우리말로 흑백 논리(黑白論理)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 이것은 지극히 미분화된 유아적 사고의 전형으로, 타협과 절충을 모르는 단순한 선택형의 사고(思考)를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냉전 시대를 겪어 오는 동안 남한의 국민이나 북한의 인민 할 것 없이 모두 이런 획일화된 사고 체계를 강요당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며 말을 잘 못 한 죄로 입이 찢어지고 잔인한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이승복 어린이가 생겨났다는 슬픈 사실(史實)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몇 년 전 이승복 어린이가 정말로 무장 공비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하였나, 아니면 당시 취재 기자가 순전히 자신만의 판단으로 기사를 잘 못 써서 엉뚱하게도 단순히 공비에게 학살당한 어린이를 영웅으로 몰아갔나 하는 문제가 일부 지상(紙上)에서 접전을 벌인 일이 있다.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아무개 일간지의 기자가 특종 만들기에 급급한 나머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썼다는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 시대 - 민주주의의 탈로 위장한 일인 독재의 시대 - 를 살고 그 시대의 획일화된 관치(官治)교육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당시의 국민 학교 학생이던 이승복 어린이는 보도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그때의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의 확고한 흑백 논리에 사로잡힌 반공 이념으로 중무장하고 있었으며, 그 어린이는 무장 공비 앞에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반복적인 교육은 일정한 사고 체계와 행동 유형을 낳는다”는 학습 원칙의 틀에서 그 어린이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여유나 사상적 이념에 대한 지식과는 상관없이 주입되어지고 각인(刻印)되어진 대로 그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공산당에 항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교과 과정에 충실한 판단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사실(史實)이 사실(事實)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른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치열한 논쟁으로 일부 언론이 서로를 헐뜯는 바람에 작은 영웅 이승복 어린이의 가족과 마을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참으로 대승적(大乘的)이지 못 할 뿐 아니라, 공산당이 싫다고 했던 좋다고 했던 공비의 손아귀에서 처참하게 죽어 간 어린이를 부관참시(剖棺斬屍)하듯 한 행위야말로 대립의 당사자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당시의 극한적인 남북 대치 상황과 폐쇄적인 교육 환경에서 당연하기만 했던 흑백 논리 때문에 희생된 한 죄 없는 어린이의 사건을 다루면서 “말 했냐 안 했냐?”하고 흑백 논리식 비난 이상의 것을 생각지 못 하는 것이 이상하기만 하다.

어느 쪽이 옳든 그들이 편견에 찬 논박에 앞서 했어야 할 것은 냉전이 계속되던 시대적 상황과 길들이기를 주로 하는 ‘한국식 민주주의’ 하에서의 획일화된 교육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며, 그 폐해가 실증적으로 무엇이었나를 부각시키고 그 대안을 찾아내는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흑백 논리로 사람을 매장시킨다. 최근 참여 정부 시대를 맞아 더욱 급변해가는 우리나라의 이념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개입하여 “보수냐 진보냐”의 단순한 논리로 서로 상대방을 예리하게 재단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다. 내 생각과 같으면 무조건 선(善)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더 볼 것도 없이 악(惡)이라는 극명한 이분법적 논리는 서로 상생(相生)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좁혀가고 있다. 모두가 유치한 흑백논리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思考)의 경직성 때문에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삼라만상이 상큼한 연두색으로부터 질푸른 녹음이 우거질 때까지, 타는 듯 붉은 단풍으로부터 순결한 백색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마냥 흑백의 눈을 가지고 산다. 컴퓨터의 모니터는 256색을 넘어 이제는 수 만 가지의 색상을 구사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예스나 노나”의 갈등 속에서 산다. 이런 유아적이고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인가?

수 천만 년이 흐른 후 미래의 고고학자(考古學者)가 한반도를 둘러보고는 “이곳에 살았던 호모 사피엔스는 머리와 눈이 까맣고, 또 여러 정황으로 보아 흑백 명암만을 구분할 줄 아는 독특한 인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든다.